

국 어 (7 급)

(과목코드 : 014)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아래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 어떤 경우에도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독립된 품사로 단어와 띄어 쓴다.
· 주로 체언을 꾸며 준다.

- ① 달리 ② 서너
③ 어떤 ④ 갓은

2.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믿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떤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착오 탓인가. 확실히 구뚝발 소리다. 점점 가까워 오는---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 들어온다. 사닥다리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괴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손아귀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서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인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 오상원, <유예>

- ① 대화로 인물의 성격을 그리고 있다.
②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④ 주인공이 갖는 감정의 흐름에 기대어 서술하고 있다.

3. 다음 중 ㉠과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학에서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알고 보면 ‘상식’이다. 예컨대 필요한 재화를 효율성 원칙에 따라 생산하자면 되도록이면 비용을 줄이는 대신 편익은 커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따라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상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올바르게 산다고 봐야 한다.

자기 혼자 편히 살자고 이웃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위험한 일들을 떠맡긴다면 그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주류경제학은 이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높이 찬양하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몰상식적인 처사인지가 금방 드러난다. 더 나아가 그것은 물염치하기조차하다. 따라서 효율성 원칙은 타인을 배려하는 공생의 원칙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 경제학은 이를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부른다. 일상생활 규범으로 암송되고 있는 (㉠)라는 사자성어도 알고 보면 이러한 경제 원칙의 문학적 표현이다.

이처럼 경제 원칙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상식에 불과한 것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즐긴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지 조성으로 이익을 얻은 개발업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도로가 건설될 때 이익을 보는 도로사용자가 휘발유 사용량에 비례하여 도로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한 자로 여겨질 것이다. (㉠), (㉡)! 이렇게 보니 경제학 원칙은 상식이며, 도덕적 규범이 반영된 것이다. 인간이라면 이런 상식과 도덕을 따라야 할 것이다.

- ① ㉠ 易地思之 ㉡ 背恩忘德
② ㉠ 十匙一飯 ㉡ 棟梁之材
③ ㉠ 人之常情 ㉡ 俯首聽命
④ ㉠ 吳越同舟 ㉡ 守株待兔

4. 다음 중 아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이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① 자조적인 시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자성적인 어조를 통하여 자유와 정의가 소멸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 ③ 반복과 변주를 통한 수미상관식 구성을 통하여 의미 강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고, 염세적 태도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5. ‘장미’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아래의 ㉠ ~ ㉤에 들어갈 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묘사: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는 짙은 청록색의 투명한 화병에 빨간 장미 일곱 송이가 꽂혀 있다.

* 비교와 대조: ㉠ _____

* 유추: ㉡ _____

* 예시: ㉢ _____

* 분류: ㉣ _____

* 서사: 많은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장미 역시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빨간 봉오리를 맺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줄기에 가시를 품고 있다.

- ① ㉠: 국화에 비하여 장미는 꽃잎의 크기가 크다. 그러나 꽃잎의 수는 국화의 그것보다 적다.
- ② ㉡: 장미는 어여쁜 색시의 은장도와 같다. 장미의 꽃잎은 어여쁘지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가 줄기에 있다.
- ③ ㉢: 장미는 일상생활은 물론 문학 작품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어린왕자’의 경우에는 유리병 속의 장미가 나온다.
- ④ ㉣: 장미는 잎, 줄기,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꽃잎과 가시가 달려 있는 줄기,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

6. 다음 중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적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그는 업무처리가 머뭇기로 소문이 나 있다. → 정확하게
- ② 우리 일에는 김 과장처럼 늑냥한 사람이 적격이다. → 활달한
- ③ 할머니는 따듯한 죽을 골막하게 담아 주셨다. → 가득
- ④ 그녀는 우리 동기 가운데서 가장 동똥 학생이었다. → 뒤떨어진

7. 다음은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려고 쓴 쪽지 글이다. 아래의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 희망적인 내용을 담을 것.
-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것.
-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①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문득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다.

②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축 쳐져 있는 모습, 너 답지 않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
너무 아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렴.
봄의 새싹같이.

③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하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
괜찮지? 수업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④ 동생이 아픈데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다며?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엮친 데 덮친 격’이 되었구나.
힘내! 우리는 젊잖아?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다.
친구야.

8. 다음 밑줄 친 한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연구팀은 신제품 啓發에 착수하였다.
- ②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混沌이 되었다.
- ③ 교통 신호 體制만 바꾸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 ④ 은메달 스트레스는 메달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올림픽의 현실을 傍證하는 예다.

9. 다음 글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언어 순화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은 ‘다방’보다는 ‘커피숍’에 갈 때에, ‘커피숍’보다는 ‘카페’에 갈 때에 더 많은 금전 지출을 각오한다. 목장에서 소의 ‘젖’을 짜서 공장에 보내면 용기에 담아 넣고 ‘우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 업소에서 고객에게 ‘밀크’로 제공하면서 계속 부가 가치가 높아져 간다. 가난한 사람은 ‘단칸방’에 세 들고 부자는 ‘원룸’에서 사는 것을 언어를 통하여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곧 토착어에서 한자어로, 또 서구 외래어로 변신할 때마다 당당히 이윤을 더 비싸게 붙일 수 있는 위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외래어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이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
- ②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
- ③ 토착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향
- ④ 의사소통의 공통성을 강화하는 방향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시장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시장 설계의 방법은 양방향 매칭과 단방향 매칭이 있다. 양방향 매칭은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배려하여 쌍으로 맺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양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을,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매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시장 설계와 방법
- ② 재화 배분과 방법
- ③ 매칭의 선택과 방법
- ④ 경제 주체와 매칭

11. 다음 중 아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나의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① 이 시는 ‘기다림과 상실의 미학’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모란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모란이 지고 난 뒤의 봄날의 상실감으로 인해 설움에 잠기지만, 그 슬픔과 상실이 주는 역설적인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이 시에서 화자는 ‘모란’의 아름다움이 ‘한 철’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2. 다음 글을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담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 ㉡, ㉢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의 밑줄 친 부분에서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생략된 주어는 ‘담장’입니다.
- ④ ㉡에서는 밑줄 친 부분 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13.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선설은 ‘인간의 선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집안이란 나라든 모든 사회는 ‘인간’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 안에서 ‘선한 요소’를 찾는데, 이들이 찾는 선한 요소란 곧 도덕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간을 규정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다. 죄나 업을 가진 존재라는 종교적 이해 방식도 있었고, 억압된 존재라는 심리적 이해 방식도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간을 애초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해오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관점이 그러하다.

(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인간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인간의 바깥에서 국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다. 그것을 한비자는 법과 권력, 목자는 하느님이라고 했다.

(라) 이렇게 볼 때, 인간을 보는 관점은 인간이란 어떠하다는 인간론을 넘어서서, 누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그것이 사회 정치 이론의 받침돌이다.

- ① (라) -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라)
- ③ (가) - (다) - (나) - (라)
- ④ (가) - (나) - (라) - (다)

14.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의 독음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사의 詰責이 두려워 언제까지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다. - 질책
- ② 기자들은 김 의원 발언의 요점 捕捉을 위해 애를 썼다. - 포착
- ③ 대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암살단에 의해 대사관에서 被襲을 받았다. - 피습
- ④ 한 유통업체가 특정 브랜드 상품 판매 斡旋에 앞장서 빈축을 사고 있다. - 알선

15. 다음 중 아래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분수’에 대한 표현이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구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분수는 대개가 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분수들이다. 화산이 불을 뿜듯이, 혹은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땅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쩌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 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 ① 분수는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 ②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 ③ 서양인의 역사와 인간생활을 지배해 온 힘은 ‘분수’와 같은 거역하는 힘이다.
- ④ 분수와 같은 운명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은 그 힘의 한계에 부딪쳐 곧 멈추고 말 것이다.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시 영국의 곡물법은 식량 가격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입 곡물에 대해 탄력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곡가(穀價)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시 수요는 크게 둔화된 반면, 대륙 봉쇄가 풀리면서 곡물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는 국력의 유지와 국방의 측면을 위해서도 국내 농업 생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주들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는 달리, 공장주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관세가 인상되면 곡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고 제조품의 수출도 감소하여 마침내 제조업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장주들은 영국의 미래는 농업이 아니라 공업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곡물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① 영국 곡물법의 개념
- ② 영국 곡물법의 철폐
- ③ 영국 곡물법에 대한 의견
- ④ 영국 곡물법의 제정과 변화

17. 다음 중 수사(數詞)가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사과 하나를 집었다.
- ② 열의 세 곱은 서른이다.
- ③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 ④ 영희가 첫째로 도착하였다.

18.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공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인 데 비해, 시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으로서 공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공간, 즉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 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되어 존재했다.
- ② 아인슈타인 등장 전까지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인 물리량이 아니었다.
- ③ 아인슈타인 등장 전까지 시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변화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다.

19.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 ② 천 년의 바람이 흐른다.
- ③ 여기 그 사람의 뼈를 묻고
- ④ 이 물건 말고 다른 것 주세요.

20.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문학이란 말이 어느 때 누구의 창안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는 의미의 개념으로 쓰이기는 육당(六堂), 춘원(春園) 이후에 비롯하지 않은가 한다.

그 전에는 비록 신문학이란 문자를 왕왕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광의로 사용되었다.

광무(光武) 3년 10월 모(某)일 분의 『황성신문』(皇城新聞) 논설에 성(盛)히 문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문학은 아니었다. 즉 학문 일반의 의미로 문학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신문학이란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 우리로서 보면 실로 가소로운 혼동이다. 그러나 문학이란 말을 literature의 역어(譯語)로 생각지 않고 자의(字義)대로 해석하여 사용한 당시에 있어 이 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문학’(‘literature’의 역어) 가운데, 시, 소설, 희곡, 비평을 의미하는 문학, 즉 예술문학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황성신문』 신문논설을 보면 오히려 학문이란 말을 문학이란 문자로 표현하는 데 문장상의 참신미를 구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선 문학이란 말이 분명히 그대로 신학문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문학이란 말에 대한 자의대로의 해석일 뿐더러 문학에 대한 동양적 해석, 전통적 이해의 일 연장(延長)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 임화, <개설신문학사>

*광무 3년: 대한제국의 연호. 1899년.

*『황성신문』: 1898년 창간한 일간신문.

*역어(譯語): 번역어. 외국어를 번역한 말.

- ① ‘신문학’이라는 말의 유래와 현재적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현재 ‘신문학’이라는 말은 ‘신학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③ ‘문학’은 육당, 춘원 이전의 과거에는 ‘학문 일반’의 의미였기 때문에 『황성신문』에서 나타나는 ‘신문학’이라는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다.
- ④ 현재 사용하는 ‘문학’이라는 말은 ‘literature’의 역어(譯語)다.

21. 다음 중 버크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 ①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②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 ③ 성공적인 대의제를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자질이 중요하다.
- ④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22. 다음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뽀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덥석
한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오세영, <열매>

- ① 탕자 ② 가지
③ 모 ④ 이빨

23. 다음 밑줄 친 낱말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세달이 지나도록
- ② 수업이 끝난 지도
- ③ 집에 갈 생각 뿐이었다.
- ④ 노력한만큼 이루어진다.

24. 다음 중 ‘피동 표현’에서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 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 ②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 ③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 ④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25. 다음 중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톡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객객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흔들린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군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 최인훈, <광장>

- ① ㉠은 지식인인 주인공을 남한 사회에 남게 하려고 설득하는 내용이다.
- ② 주인공이 ㉡과 같은 행동을 보인 이유는 ㉢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③ ㉣은 지식인들이 ‘권력’이라는 약에 취해서 전쟁을 일으킨 결과 결국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다.
- ④ 주인공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에서 난파꾼에 비유된 지식인의 허무감과 ㉢에서 언급했던 ‘환상’에 대한 회의감 때문으로 나타난다.